

‘육식 공룡’ NC를 주목하라

선택과 집중 버리고 ‘올인 모드’로 부상회복 라이트·구창모 컨디션업 선발투수 4인 로테이션 운영 방침 시리즈 중후반 승부수 띄우는 전략

하루를 잘 있는 사령탑. 이동욱 NC 다이노스 감독(46)이 생각하는 이상적 지휘관의 역할이다. 144경기 장기 레이스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수다. 또 한 경기 결과에 연연하면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는 지론이다. 한 경기만을 놓고 ‘올인’하는 운영은 최대한 지양했다. 좋은 날과 나쁜 날 모두 ‘상수’로 상징한 뒤 다음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이 감독은 “분명히 어렵다. 하지만 어찌겠나”라며 자신의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 결과가 NC의 창단 첫 정규 시즌 우승이었다.

하지만 한국시리즈(KS)는 다르다. KS에 직행한 NC는 4경기를 이기면 통합우승을 차지한다. 긴 호흡을 이어왔던 이 감독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 대신 ‘집중과 집중’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장문에서 만난 이 감독은 “기본적으로 정규 시즌 가장 좋았던 멤버들을 투입할 것이다. 하지만 승부를 걸어야 할 때는 쏟아 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위로 가을무대를 밟아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지휘했던 경험도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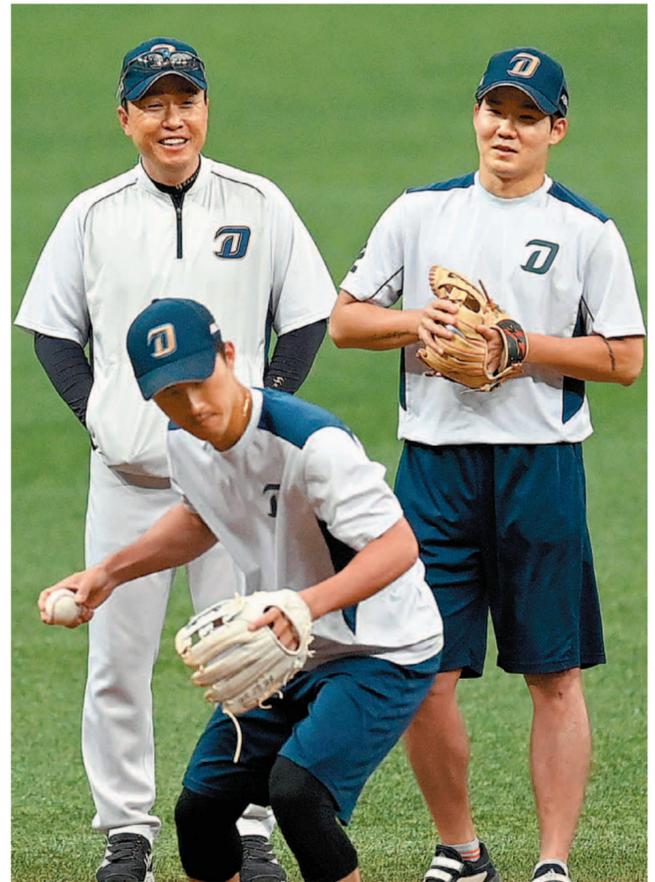
기본적으로 선수단의 ‘웍스’ 자체가

탄탄한 편인데, 부상으로 정규시즌 막판 이탈했던 선수들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선발진의 한 축을 맡아줘야 할 마이크 라이트(왼 무릎 부상)는 KS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전완부 염증과 피로감으로 3개월 가까이 이탈했던 구창모 역시 정규시즌 막판 복귀에 성공했고, 선발등판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손바닥 부상 탓에 시즌 막판까지 배트를 쥐지 못했던 박석민도 정상적으로 타격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NC는 정규시즌 종료 후 8일 첫 정복전을 치렀는데, 정규시즌 가장 강력했던 베스트9이 총출동했다. 나성범이 홈런을 때렸고 양의지, 이명기 등 주축 타자들이 적시타를 때리는 등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감독은 무리하게 투수들을 투입하는 대신 기본적으로 4인 로테이션으로 4차전까지는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 중후반, 크게 본다면 시리즈 중후반에는 승부수를 띄울 생각이다.

단기전, 하루의 패배를 그저 잊고 넘어가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도 많은 무대다. 이 감독도 이를 알고 있다. 정규시즌 중후반 상처투성이였음에도 육식공룡의 날카로운 이빨을 과시하며 탄탄한 선수층을 과시한 바 있는데, 이제는 100% 전력에 가까워지고 있다. 쏟아 부을 자원이 많다는 것은 NC의 단기전 구상에서 가장 든든한 자산이자 무기다. 이 감독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요량이다.

최익태 기자 ing17@donga.com



하루하루의 승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던 NC 이동욱 감독(뒤 왼쪽)은 한국시리즈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긴 호흡이 주특기인 그의 단기전 ‘집중’ 승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스포츠동아DB

로하스 노리는 일본구단들

日 매체 “올릭스 등 시즌 후 쟁탈전” 보도



KT 로하스

델 로하스 주니어(30·KT 위즈) 쟁탈전이 벌어질까. 일본 구단들이 로하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스포츠전문매체 데일리스포츠는 9일 “올릭스 버펄로스가 2021시즌 외국인타자로 로하스를 영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일본 내 타 구단도 영입작업에 나설 수 있어 쟁탈전은 필연적”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구단들은 올 시즌 후 외국인선수들을 대거 교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니치 드래곤스도 2년간 181경기에서 타율 0.323, 22홈런, 102타점을 올린 핵심 외국인타자 쇼이로 알몬테와 재계약 불가를 결정할 바 있다.

데일리스포츠는 “로하스는 2017시즌 도중 KT로 이적한 뒤 급성장한 파워히터다. 공격뿐 아니라 뛰어난 수비력까지 자랑한다”며 “올릭스의 경우 외야진에 국가대표 요시다 마사타카 외에 확실한 고정 자원이 없어 로하스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하스는 KBO리그 통산 511경기 출장에 타율 0.321(1971타수 633안타), 132홈런, 409타점을 거뒀다. 올 시즌에는 47홈런으로 이 부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강산 기자

SK, 류선규 신임 단장 선임



류선규 단장

SK 와이번스는 9일 “류선규 전 운영 그룹장 겸 데이터분석 그룹장을 신임 단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류선규 단장은 1997년 LG 트윈스에 입사해 프런트 생활을 시작했고, 2001년 SK로 이직해 마케팅팀 기획파트장, 홍보팀장, 육성팀장, 전략기획팀장, 데이터분석 그룹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SK K 구단은 “류 단장이 비선수 출신이지만, 선수단 운영 및 육성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홍보 및 마케팅 등 프런트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류 단장은 “뜻 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팀이 어려운 시기에 단장직을 맡게 돼 책임감도 크다”며 “김원형 신임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단과 프런트가 지혜를 모아 다시 강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산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선수만 떠나는 게 아니다...코치진도 한파

한화 송진우·이양기 등 코치 10명 아웃 SK 박재상·두산 최경환 코치 등도 이별

최근 KBO리그에는 엄청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포스트시즌(PS) 탈락팀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정난으로 인적 개편에 속도가 붙으면서 선수들뿐 아니라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코치들도 칼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쇄신안을 꺼내든 한화 이글스가 6일 가장 먼저 코치진의 재계약 불가 소식을 알렸다. 1군 송진우 투수코치와 이양기 타격코치, 퓨처스(2군) 팀 김해남 투수코치와 김성래 타격코치, 채종국 수비코치,

차일목 배터리코치, 전형도 작전코치, 육성근 장종훈 총괄과 재할관 구동우 코치, 정민태 투수코치 등 10명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송 코치와 장 코치는 2018시즌을 앞두고 부임한 한용덕 전 감독과 함께 중추적 역할을 맡았던 구단의 레전드 출신들이다.

염정현 전 감독이 물러나고 김원형 신임 감독 체제로 9일 마무리캠프를 시작한 SK 와이번스도 기존 코치들을 대거 떠나보냈다. 감독대행을 맡았던 박경환 1군 수석코치와 이종은 2군 감독이 일찌감치 사퇴 의사를 밝혔고, 1군 박재상 타격코치와 서한규 작전주루코치, 이지훈 컨디셔닝코치, 2군 김경태 투수코치, 최상덕 PDA 투수코치, 김필중 배터리 코치, 정수성 작전주루 코치, 조문성 컨디셔닝 코치도 팀을 떠나



송진우

이양기

박재상

최경환

다. 그 대신 조원우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새롭게 2군 감독으로 부임했고, 이대진 전 KIA 타이거즈 투수코치와 세리자와 유지진 전 LG 트윈스 배터리코치를 보강했다.

플레이오프(PO)에 오른 두산 베어스도 2군 최경환, 최해명 코치와 3군 유지현, 장원진 코치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P S 탈락팀들뿐 아니라 가을야구를 치르고 있는 팀들마저 퓨처스 팀 코치진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2021시즌 10개 구단 코치진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한 코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선수단들) 절반만 줄이려던 규모가 더 커졌다”며 “PS가 진행 중이라 타 팀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변수는 LG, 키움 히어로즈, 한화 새 감독 체제로 2021시즌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규모 코치 이동도 예상된다. 이미 기존의 팀을 떠난 코치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지만, 남아있는 코치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경기 결과

남자프로농구 (8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전자랜드	11	8	3	0.727	0	1승
2	KCC	12	8	4	0.667	0.5	3승
2	SK	12	8	4	0.667	0.5	1승
4	모비스	11	6	5	0.545	2	1패
4	인삼공사	11	6	5	0.545	2	1패
6	오리온	12	6	6	0.500	2.5	1패
7	LG	11	5	6	0.455	3	1승
8	삼성	12	5	7	0.417	3.5	1승
9	KT	12	3	9	0.250	5.5	7패
9	DB	12	3	9	0.250	5.5	9패

프로배구 (9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KB손해보험	5	5	0	13	507	473	5승
2	OK금융그룹	5	5	0	12	547	502	5승
3	대한항공	6	4	2	12	575	541	2승
4	현대캐피탈	6	3	3	8	584	585	2패
5	우리카드	6	2	4	8	502	529	1승
6	삼성화재	6	1	5	5	572	618	5패
7	한국전력	6	0	6	2	517	556	6패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흥국생명	5	5	0	14	485	440	5승
2	IBK기업은행	4	2	2	7	342	357	1패
3	GS칼텍스	5	2	3	6	463	457	1승
4	인삼공사	5	2	3	6	409	417	2승
5	현대건설	5	2	3	5	414	434	3패
6	도로공사	4	1	3	4	303	311	2패

프로골프 (9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오리온(멕시코)	-13	②히메카(일본)	-11	③존슨(미국)	-11		
2	구치(미국)	-9	⑤캠퍼(미국)	-8	⑥스트라카(오스트리아)	-8		
3	휴즈(캐나다)	-7	⑦해팅(잉글랜드)	-7	⑧번스(미국)	-7		
4	데이(호주)	-7	⑨통(미국)	-6	⑩임성재(한국)	+3		

해외축구 (9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득점	실점	연속	
1	KB손해보험	5	5	0	13	507	473	5승
2	OK금융그룹	5	5	0	12	547	502	5승
3	대한항공	6	4	2	12	575	541	2승
4	현대캐피탈	6	3	3	8	584	585	2패
5	우리카드	6	2	4	8	502	529	1승
6	삼성화재	6	1	5	5	572	618	5패
7	한국전력	6	0	6	2	517	556	6패

아마추어 경기결과 (9일)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1.10(화) 19:00	안양KGC	vs	오리온스	안양실내체육관

오늘의 토트 (10일)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1.10(화) 19:00	OK금융	vs	KB손보	안산상록수체육관

경기 예고

남자프로농구 (10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전자랜드	11	8	3	0.727	0	1승
2	KCC	12	8	4	0.667	0.5	3승
2	SK	12	8	4	0.667	0.5	1승
4	모비스	11	6	5	0.545	2	1패
4	인삼공사	11	6	5	0.545	2	1패
6	오리온	12	6	6	0.500	2.5	1패
7	LG	11	5	6	0.455	3	1승
8	삼성	12	5	7	0.417	3.5	1승
9	KT	12	3	9	0.250	5.5	7패
9	DB	12	3	9	0.250	5.5	9패

프로배구 (10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KB손해보험	5	5	0	13	507	473	5승
2	OK금융그룹	5	5	0	12	547	502	5승
3	대한항공	6	4	2	12	575	541	2승
4	현대캐피탈	6	3	3	8	584	585	2패
5	우리카드	6	2	4	8	502	529	1승
6	삼성화재	6	1	5	5	572	618	5패
7	한국전력	6	0	6	2	517	556	6패

아마추어 경기예고 (10일)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1.10(화) 19:00	안양KGC	vs	오리온스	안양실내체육관